

기아 전기차SUV 'EV9' 시승기

# 탄탄 몸체·폭발 가속·3열 실내 '꿈의 패밀리카'

국내 최초 스윙블 시트 적용...2열 의자 방향 전환 가능해 활용도 ↑  
계기판·공조기·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일체형...네비, 증강현실 지원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1회 충전 시 454km 주행 경제성도 합격점

압도적인 크기, 탄탄한 몸집, 폭발적인 가속.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기아의 '더 기아(The Kia) EV9'를 경험한 소감이다.

최근 기아 오토랜드 광주 1공장 정문에서 담양 광주호까지 왕복 36km를 EV9(6인승 어스 4WD A/T)를 타고 시승했다.

EV9는 개인적으로도 기대했던 기아의 전용 전기차 모델이었다. 국내 최초의 3열 대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기존 전기차 모델 중 가장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한다. 디자인 역시 단단한 인상을 주면서도, 성능까지 갖춰 기아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에 금세 수긍이 됐다.

첫 만남에서부터 목직함을 풍기는 외관을 마주하자 마음이 매료됐다. 그동안 SUV 운전자로서, '큰 차'에 대한 동경도 있었다.

EV9의 크기를 살펴보면 5010mm 길이와 1980mm의 폭, 높이 1750mm 등 전기차 영역을 넘어 국내 판매 중인 모든 승용차 중 최상위급을 자랑한다.

실내공간을 결정하는 휠베이스는 3100mm에 달한다. 국산차 중 가장 큰 차로 여겨지는 현대의 팰리세이드보다 200mm나 더 길다.

윈도우 디자인과 실루엣을 날렵하게 빼 '생각보다 슬림하다'는 인상을 줬고, 무게 중심이 낮게 깔리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줬다. 멀리서 바라봤을 때 압도적인 크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날렵하고 세련된 분위기도 풍겼다.

실내 공간을 들여다 보니 1·2열 모두 헤드룸과 레그룸 여유로웠다. '한 덩치'하는 탓에 웬만한 차를 타서는 여유로움을 느끼지 못했으나, EV9만큼은 지금까지 타봤던 어떤 차종보다 넓은 실내공간을 자랑했다.

물론 3열의 경우는 다소 좁게 느껴질 수 있었으

나, 기본 트렁크 공간이 뒤쪽에 배치된 것을 감안하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났다.

동승객들의 편의를 배려한 세심함도 돋보였다. 센터 콘솔 아래 가방 등 간단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었고, 컵홀더와 수납함 등 1열은 물론, 2열 탑승객도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패밀리카로 적합한 구성답게 2열 의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스윙블 시트'도 적용됐다. 3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카시트 설치를 비롯해 3열과 마주볼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등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탄을 하고 있자, 해당 기능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기술이라고 기아 관계자가 귀뜸해줬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계기판, 공조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일체형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이 좋았다. 증강현실(AR)을 지원하는 내비게이션도 안전운전에 도움을 줬다.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 무게로 공차 중량이 2585kg에 달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감을 보여줬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흡음재를 추가한 분리형 카펫과 흡음 타이어를 탑재한 데다, 에어로다이내믹에 공을 들여 풍절음도 들리지 않았다.

뒷좌석을 봤을 때 전기차 특유의 통풍 뒤통는 느낌이 없이 주행 내내 일관된 정숙성을 유지했다.

주행거리도 EV9의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99.8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EV9는 1회 충전 시 454km 주행이 가능, 경제성까지 챙겼다는 평가를 얻는다.

실제 시승을 마친 뒤 확인한 연비는 공인 전비 3.9km/kWh를 뛰어넘는 6km/kWh 수준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SUV '더 기아 EV9'을 기아 오토랜드 광주 1공장 정문에서 담양 광주호까지 왕복 36km를 시승했다. 압도적인 크기에 넓은 실내공간, 편의성을 비롯해 조용한 주행감과 폭발적인 가속 성능이 인상적이었다. (기아 제공)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세련된 디자인의 운전석 일체형 디스플레이

## 기아 인도 공장, 누적생산 100만대

### 4년만에...아나타푸르서 기념식

기아 인도 공장이 4년 만에 누적생산 100만대를 달성했다.

기아는 최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州) 아나타푸르에 위치한 기아 인도 공장장에서 '100만대 생산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는 지난 2019년 인도 공장 준공 이후 ▲셀토스 53만2450대 ▲쏘넷 33만2450대 ▲카렌스 12만516대 ▲카니발 1만4584대를 생산해 4년만인 지난 13일 누적생산 100만대를 달성했다.

100만번째로 생산된 차량은 셀토스의 상품성 개선 모델인 '더 뉴 셀토스'다.

기아 인도 공장은 약 216만㎡ 부지 위에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엔진 공장 등으로 연간 최대 생산능력 35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이다.

기아는 지난 2017년 4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와 인도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월 착공해 2019년 7월부터 셀토스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아는 인도 공장에 공장 용수 100% 재활용 시스템과 로봇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 스마트 태그를 활용한 차종, 사양 자동 인식 시스템으로 설비를 효율화했다. 또한 도장공장 내 로봇 모니터링 체

계를 적용함으로써 설비 이상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등 각종 스마트 기술을 접목했다.

기아는 인도 공장 100만대 생산 달성을 기념하며 기아 인도법인의 비전 선포식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아는 인도 시장에서 '기아 2.0' 전략을 통해 올해 상반기 6.7% 수준인 인도 시장 점유율을 향후 10%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아는 생산 차종을 확대하고 지난 6월 말 기준 인도 전국 215개 도시에 위치한 300개 가량의 판매점 수를 향후 2배 이상 늘려 판매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아는 지난 2019년 글로벌 복합 브랜드 체험관 '기아 360'을 인도 델리 인근의 신도시인 구르가온에 개관했으며 차량 구매부터 유지관리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도 운영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아는 환경 보호 사회공헌활동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해성을 알리는 디알오피(DROP) 프로젝트와 나무 심기를 통해 황무지를 복원하는 우파르(Uphaar)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기아는 지난 2022년에 인도 내 자동차 업체 중 최단기간인 만 30개월만에 누적생산 50만대를 기록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호타이어, 프리미엄 구매객에 사은품

### 다음달 13일까지 이벤트

금호타이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금호타이어의 '마제스티9(Majesty9) SOLUS TA91'과 '크루젠(CRUGEN) HP71, HP51'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프리미엄 코닥 미니 캐리어(4개 구매시) 사은품을 증정한다.

금호타이어 최고급 프리미엄 타이어 마제스티9은 승차감 및 제동성능 극대화를 위한 5세대 S-SBR 및 고풍량 실리카 시스템이 적용된 첨단 신

소재(컴파운드)를 사용해 승차감 및 제동성능을 극대화했다. 마모 성능과 눈길제동력을 기존 제품 대비 20% 이상 개선해 안전내구성을 업그레이드했다.

크루젠 라인업의 대표 모델인 크루젠 HP71은 도심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원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운전자들을 위해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컴포트 SUV용 타이어이다. 또 지난해 6월 출시된 신제품 크루젠 HP51은 자사 기존 제품 대비 구름저항과 빗길제동력 등을 대폭 개선해 주행안정성을 향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고성능 전기차 장점 한몸에 '아이오닉 5 N'



현대차 '아이오닉 5 N'.

(현대차 제공)

### 현대차, 英 자동차 축제서 첫 공개 고출력 배터리·열관리 제어 곡선·트랙 주행 능력도 탁월

현대차의 첫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차는 최근 열린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아이오닉 5 N을 최초로 공개했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 N은 과거 내연기관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전동화 모델을 개발하는 '현대 모터웨이(Hyundai Motor Way) 전략의 실행을 알리는 상징적인 모델이다.

차량은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와 전기차(EV) 특화 열관리 제어 시스템이 탑재돼 전·후륜 모터 합산(N 그린 부스트 모드 적용 시) 최대 출력 478kW와 최대 토크 770Nm의 성능을 발휘한다.

또 공격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에어 커튼과 에어

플랩이 적용됐고, 기본 차 대비 전고는 20mm 정도 낮아졌으며 리어 스포일러(뒷날개)는 100mm 길어졌다.

특히 아이오닉 5 N은 N 브랜드가 추구하는 ▲코너링 악동(곡선로 주행 능력) ▲레이스 트랙 주행 능력 ▲일상의 스포츠가 등 3대 요소를 모두 반영했다.

먼저 코너링 악동 요소와 관련해서 현대차는 아이오닉 5 N에 전륜 스트럿 링 등을 적용해 전반적인 차체 강성을 강화했고, 후륜 휠하우스 안쪽의 차체를 보강해 기존 아이오닉 5 대비 비틀림 강성을 11% 증대시켰다.

유체의 관성을 활용해 노면의 충격과 전동화 시스템의 움직임에 저감하는 하이브리드 마운트를 전동화 모델로는 처음으로 적용했다.

현대차는 내연기관 레이싱 대회인 월드랠리챔피언십(WRC) 랠리카에도 적용된 기능통합형 액슬을 전·후륜에 모두 적용했다. 기능통합형 액슬은 휠 조인트와 허브가 일체화돼 중량이 줄어들고,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킨다.

'N 페달',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등 보다 기민한 코너링을 경험할 수 있는 특화 사양도 탑재됐다.

N 페달은 트랙 주행 상황에서 회생제동을 활용하는 기능을 말한다.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는 전·후륜에 최적의 구동력을 배분해 원활한 드리프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아이오닉 5 N의 고성능 전기차에 걸맞게 주행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차량의 후륜 모터에는 2개의 인버터를 장착한 2-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이 적용돼 일상 주행 시에는 1개의 인버터가, 고속 주행 시에는 2개의 인버터가 작동해 주행 상황에 맞는 출력이 발휘된다.

또 전기차 전용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이 적용돼 가혹한 트랙 주행 상황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행 목적에 따라 배터리 온도를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도 적용됐다.

내연기관차의 주행감을 느낄 수 있는 가상 변속 시스템 'N e-쉬프트'와 가상 사운드 시스템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도 아이오닉 5 N에 탑재됐다.

400V와 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모두 적용해 800V 충전 시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게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